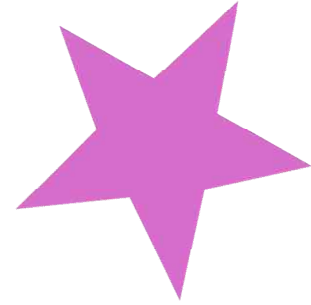


은여울 리딩스타



- Group Bookit 2기
- 독서금융교육활동 2차 후기

진행일정 & 참여인원

2차 독서모임

- 9월 5일 ~ 10일 - 도서 & 활동지(가정활동)
- 9월 11일 - 도서 & 교구재활동(모임활동)
- 9월 12일 ~ 25일 - (미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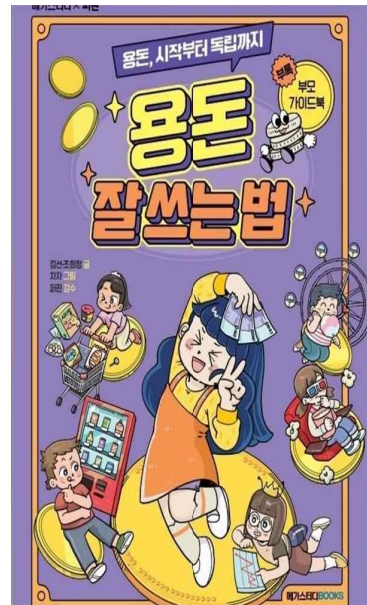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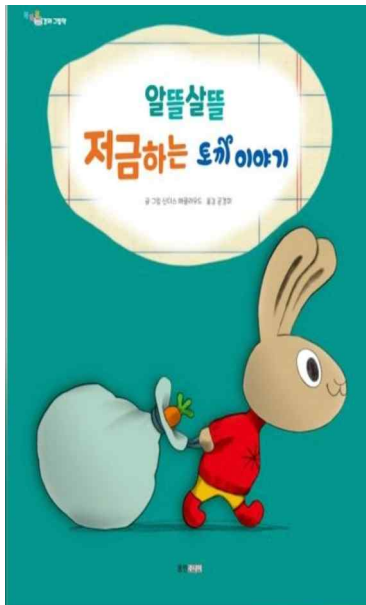
6명

이들(8살)	이봄(11살)
이서진(8살)	이하진(10살)
문승호(8살)	문지호(10살)

Bank it 추천도서 & 활동지/교구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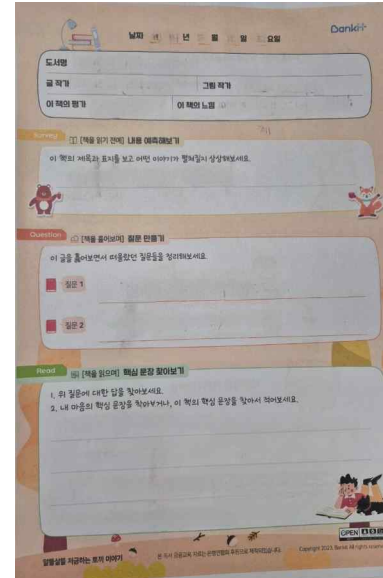


[6세 ~ 초등학교 1학년 추천도서] [초등학교2학년 ~ 4학년 추천도서]



&

활동지/교구재(저금통만들기)



활동방식 및 내용

1. 가정 활동

- 각 가정에서 도서를 읽고 활동지 하기
- 단톡방에 인증샷 올리기



1. 가정활동

- 9/5일~ 9/10일 사이에 각 가정에서 [알쏭달쏭저금하는토끼이야기]를 읽고 활동지를 했다. 활동한 후에는 '은여울리딩스타'단톡방에 올려 공유했다.



♥ 내용 예측

토끼가 당근을 저금, 저축해서 집을 사는 이야기(3명)/ 당근을 팔아 돈을 벌것같다/ 토끼가 은행에 가서 당근을 어떻게 나눠 쓸지 물어보는 이야기일것 같다/ 당근을 엄청 많이 저금할것같다

♥ 질문 만들기

저토끼는 당근을 모두 저금했을까?/ 엄마토끼는 어디갔을까?/ 새로산 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토끼은행은 어떻게 생겼을까?/ 허니와 허니아빠는 무슨이야기 중인걸까?/ 왜 자꾸 당근을 모으는걸까?/ 집을 사고서 놀러갔을까?/ 밥을 먹었을까?/ 왜 집이싸요?/ 집이너무 작은것이 아닐까?/ 토끼가 산 집이 얼마일까?

♥ 핵심 문 장

저금해서 꿈을 이루었어요!(4명)/ 허니해냈구나!/ 일주일에 당근을 한개씩 저금하면 10주후에 놀이집을 살수 있어요!/ 나만의 플레이 하우스를 살기위해서/ 괜찮은것 같다/ 당근 10개

♥ 이책의 느낌

좋다(3명)/ 나도 돈을 계획적으로 써야겠다(2명)/ 부럽다

활동방식 및 내용

2. 모임 활동

- 교구재 영상보기(부모)
- 책내용을 살펴보고
교구재활동하기



2. 모임활동

- 부모들은 [저금통만들기영상]을 보고 9월 11일 함께 모여 활동했다.
- [용돈잘쓰는 법]의 내용을 토대로 저금통만들기를 시작하였다. 지출, 저축, 기부의 뜻을 알아보고, 아이들이 돈을 모을수 있는 방법(용돈, 홈아르바이트, 특별용돈), 용돈사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 저금통마다 목표를 세우고, 2주동안 용돈을 모으고, 사용해보기로 했다.



★ ★ ★ 활동방식 및 내용

3. 미션활동 (홈아르바이트/ 용돈관리/ 사용하기)

- 9월 12일~25일까지 2주간 각 가정에서 홈아르바이트를 정하고, 저축, 지출, 기부 저금통에 돈을 모아왔다. 목표한 금액을 모았으면 사용해보기도 했고, 특별용돈이나 용돈을 통장에 저금하거나 용돈기입장을 써서 관리해보는 미션을 했다.

홈아르바이트



용돈관리



사용하기



공식 질문 & 소감

1. 홈아르바이트를 해보고 뭘 느꼈나요?
2. 우리가 번돈의 일부를 기부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가요?
3. 저축, 지출, 기부 저금의 목표를 이뤘을까요? 기분은 어떤가요?
4. 용돈을 모아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지출해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 봄	평소에는 집안일을 도와도 칭찬만 받았는데 돈을 벌수있어서 좋았어. <u>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수있었고</u> , 돈을 벌어서 사고싶은것을 사려면 더 많이 홈아르바이트를 해야하지만 뿌듯하고 재미있었. 기부는 아직 잘 이해가 안되어 설명은 들었지만 엄마아빠가 기부를 너무 많이하는것같아 조금은 아깝다는 생각이들기도해. 그래도 <u>내가 깨끗하게 사용한 옷이나 인형, 장난감도 기부할수있다는 것을 알고, 돈을 다 모아서 사고싶었던 물건을 사면 매우 뿌듯할것같아.</u>
이 들	<u>지출,저축,기부라는게 어렵고 잘 모르겠지만 돈을 모아서 계획해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u> 다양한 기부의 형태에 대해서 알았고, 홈아르바이트는 재미있기도 했지만 살짝 힘들기도했어. 열심히 모아서 뭘 살지 아직 못정했지만 보람이 있을것같아.
이하진	돈을 벌때 힘들게 해서 벌어야하는데 홈아르바이트는 쉽게 할수 있어서 좋았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할래. 목표를 이뤄 좋았어. 앞으로도 돈을 모아 내가 하고 싶은걸 사고 싶어. <u>용돈을 나눠쓸꺼야, 내가 할것을 정리해서 하고, 돈이 정리가 되니 마지막날에 정리 안해도 되고, 편하게 쓸수 있고, 마음대로 안쓰고 아낄수 있어.</u>
이서진	<u>돈 버는게 재미있었어.</u> 어디에 기부할지는 생각해볼께. <u>내돈으로 브롤카드를 사서 좋은게 나와서 좋았어. 뿌듯했어.</u> 사고 싶은것만 사면 돈이 나중에 없어서 아이스크림도 못 사먹는데, 나눠쓰니 한번에 쓰는것보다 편해졌어. 재미있었어.
문지호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되었어. 화장실 청소할때 너무 더럽고 허리가 아팠어. <u>환경단체에 기부할래. 지구 온도가 1도만 더 올라가도 지구가 폭발하지도 모른대.</u> 목표를 이뤘어. 승호가 오르골이 있어서 부러웠는데, 나도 이제 내 용돈으로 오르골을 살 수 있어서 행복해. <u>돈을 쓰고 싶은대로만 쓰면 안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u> 예전에는 돈을 잘 쓴것 같은데 돈이 나중엔 계속 없었어. 그런데 돈을 세가지로 나누고, 돈을 쓰고 싶은대로 써도 저축과 기부가 남으니까 뭔가 잘 쓴 기분이 들어.
문승호	<u>화장실 청소를 해보니 쪼그리고해서 다리가 아팠어, 엄마한테 고마운생각이 들었어. 전쟁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u> 아직 드론을 사기엔 돈이 부족해, 열심히 모아서 드론을 살거야! 무슨일을 해야 돈을 많이 모을수 있을까?. <u>용돈을 세가지로 나누는걸 생각하는게 너무 어려웠어. 근데 돈을 잘 다룰 수 있게 되것같아.</u>

부모의 2차활동 소감

허경미 (이봄, 이들)	홈아르바이트를 도입해서 아이들이 집안일에 직접 참여하고 용돈을 버는 과정에서 경제생활에 대한 개념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홈아르바이트에 대한 보수는 최저시급에 맞게 분단위로 금액을 함께 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최저시급 보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가졌다. 지출할것을 정하는게 모으는것보다 더 중요한것같다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계획없이 지출했던 나의 모습에 반성하게되었다. 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가족이 하고 있는 기부를 쪽 나열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곳에 기부하는것같다며 아까워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기부가 생산적인 일이 될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현물 기부, 현금 기부, 재능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설명해주니 인형과 장난감을 기부하겠다고 정리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다.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아이들에게 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다.
윤혜영 (이하진, 이서진)	돼지저금통에 목표없이 돈을 모아 바꾸면 콩돈이 생긴듯한 느낌에 바로 써버려 남는게 없었던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저금통 마다 저축, 지출, 기부라는 항목으로 나눠 아이들이 목표를 정하고 모아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부듯했다. 내가 돈을 벌기 시작했을때는 무조건 돈을 모아야 한다고 해서 저축뿐이 몰랐다. 그래서 갑자기 큰돈을 써야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하면 내 스스로가 돈을 잘 못쓰는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정작 필요한곳에 써야 할때는 고민을 해왔던 것 같다. 그런데 독서금융교육활동에서 배운대로 꾸준히 익힌다면 아이들은 자기 삶에 있어 또 다른 만족감을 느끼며 살수 있지 않을까 싶다. 기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엄마와 아빠가 기부하는 곳을 알려줬다. 또 너희들이 입다가 작아진 옷 중에 깨끗한 옷은 기부를 해왔다고 해주니 놀라워 했다. 아이들이 기부라는 것이 돈을 내야한다고만 생각 해서 부담이 되고, 아깝게 느껴졌다고 말한것이 생각한다. 당시에는 생각이 안났는데 직장을 다니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음수 있어서 나에게 또 다른 혜택이 주워짐을 알려줘야겠다.
송지혜 (문지호, 문승호)	우리 아이들은 집안일 돕기에 꽤 협조적인 편이지만, 화장실 청소를 해본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아이들이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다니 좋은 경험이었단 생각이 든다. (너희들도 아는걸 아빠는 왜 모르는걸까...) 평소 기부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하며 아이들과 기부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았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생각하다 보니, 기부가 꼭 금전적인 도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작아진 옷이나 다 읽은 책 등을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기부하는것, 학교 도서관 봉사나 교통안전도우미, 돌봄교실 일손도움 역시 모두 기부의 한 방법임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부가 소소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생각하니, 기부활동이라는것이 친근하게 느껴졌다. 활동을 마무리하며 아이들에게 소감을 묻다가 지호의 말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돈을 쓰고 싶은대로만 쓰면 안된다는걸 알게 되었어." 이걸 모르는 어른들도 내 주변에 적지 않다고 느끼는데, 우리 아이들은 금융 프로젝트 덕분에 인생에서 꼭 필요한 큰 교훈을 얻고 가는것같아 이 모든 시간에 감사함을 느낀다.